

돌발 병해충 갈색여치와 꽃매미 출몰... 알고 대처하면 피해 줄인다.

지용주 원예특작과
농촌진흥청 농정지원국

갈색여치의 형태와 피해증상

갈색여치 성충의 몸길이는 3~4cm 정도이고, 몸은 전체적으로 갈색 또는 암갈색이며, 배의 아랫부분은 밝은 녹색이다. 날개는 퇴화되어 축소되었으며, 성숙한 개체의 앞날개는 앞가슴 길이와 비슷하고, 뒷날개는 더 짧다. 암컷의 산란관은 길고(2.5~3.0cm), 아래쪽으로 약간 휘어져 있다. 더듬이는 암컷 8.0~8.5cm, 수컷 6.8~7.6cm 정도이고, 강력한 뒷다리를 갖고 있으며, 점핑하기에 수월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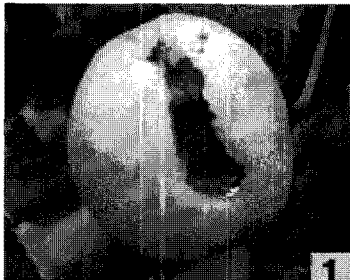
야산에 인접한 복숭아, 자두, 포도, 사과원에 대량 출현하며, 한 나무에 수십 마리씩 모여서 주로 과실을 갉아 먹는다. 성충은 동식물성 먹

이를 가리지 않는 잡식성이며, 강력한 저작력을 지녀 봉지를 씹은 과실까지 가해한다.

피해가 심한 과원은 야산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참나무 등 활엽수가 많은 지대에서 피해가 심하다.

갈색여치의 예찰 요령과 방제대책

- 조사 장소 : 과수원 인근 활엽수림대 낙엽이 쌓여있는 골짜기 반경 5m 내
- 조사 시기 : 3월 중순~4월 하순(지온 7℃에서 14℃ 사이 부화)
- 조사 방법 : 활엽수 부식질이 쌓인 골짜기 중심으로 반경 5m내 서식하는 갈색여치 밀도



1. 사과 과실피해



2. 배 잎 피해



3. 포도 잎 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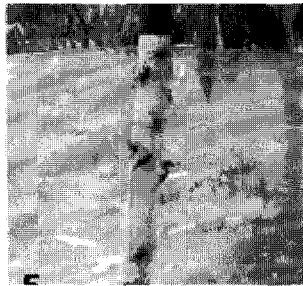
를 평방미터 당 10회 반복 육안조사
○ 예찰결과 조치사항

구분	마리 수/10㎡	조치사항
초기단계	0-2	없음
지속 관찰단계	3-5	5월 초순까지 지속적인 관찰 필요
주의단계	6-10	비닐막 및 끈끈이트랩 설치 준비
대발생 우려단계	11이상	농업기술센터 및 농촌진흥청에 알람

- 화학적 방제 : 갈색여치 등록약제 살포 메프(유제, 수화제), 에토펜프로क्स+다수진(수화제), 디디브이피(유제), 크로르피리포스+알파싸이퍼메스린(유제)
- 물리적 방제 : 친환경재배단지 등에서는 비닐방제벽, 포획 및 끈끈이트랩 활용



4. 비닐방제벽



5. 끈끈이트랩



6. 막걸리 이용 포획 등

꽃매미 발생 예방과 방제를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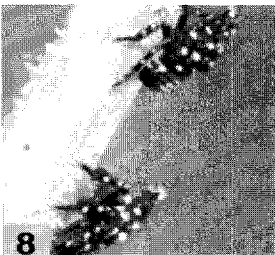
우리나라에 유입된 꽃매미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크며, 겨울철 평균기온이 1.5℃나 상승하여 알 월동이 좋아져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긴급 방제대책 T/F팀을 구성(농촌진흥청, 산림청 등)하여 방제약제 등록, 방제비 지원, 전국 관련 공무원 및 농업인 교육, 천적개발 등 친환경적 방제방법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꽃매미의 효율적 방제를 위하여 5월 중순부터는 생육지와 인근 산림, 유흥지를 동시에 방제토록 하여 포도밭에 계속 약충이 유입되어 피해를 주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9월 하순부터 성충이 산란을 위하여 포도밭에 모이면 산란 전에 일제히 방제하여 다음 해 발생을 줄이는 데 역점을 두고 지도를 하고 앞으로도 완전 박멸은 어렵지만 최대한 밀도를 줄이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은 산림청, 지자체와 협조하여 방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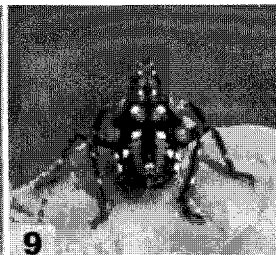
꽃매미 생활사



7. 월동



8. 2~3령 약충



9. 4령 약충



10. 성충

〈출처 : 농촌진흥청 녹색농업기술 2010년 5월호〉